

지역 소식통



정읍시,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산불예방교육

정읍시가 건조기를 맞아 산불 등 각종 산림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화수 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산불감시원, 산림재난대응단, 관계 공무원 등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 및 산불 방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맞이해 현장 대응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청 정책에 발맞춰 기존의 산불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을 하나로 묶은 '산림재난대응단'을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 감시원 74명과 산림재난대응단 50명 등 총 124명의 전문 인력은 평상시 논·밭두렁 무단 소각 행위 감시와 계도 활동을 수행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초동 진화에 투입된다. 특히 통합 운영을 통해 기존 산불 조심 기간 외에도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 재난에 공백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이화수 시장은 "최근 잇따른 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불감시원과 대응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 활동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입 유도 기업에 현금 인센티브

정읍시, 소속 직원 주소지 이전 시 1인당 20만원·기관 별 최대 200만원 지급

정읍시가 인구 유입에 기여한 관내 기관과 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인구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문제에 대해 지역 내 민간 영역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속 직원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참여 의지와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입 유공 기관, 단체, 기업체다. 소속 직원 2명 이상이 정읍시로 주소 이전할 경우 1인당 20만원의 인센티브를 해당 기관에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기관별 최대 200만원이다.

자격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정읍시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인센티브 지급 시점까지 정읍시 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입자의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재직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다.

이화수 시장은 "인구 문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역 내 모든 기관과 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입 유공 인센티브 지원이 민·관이 상생하며 정읍시의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0-5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 세계 23개국 유학생 정읍에 머문다

정읍시,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 2기 개막... 유휴 공공시설 관광지지원

정읍시가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전 세계 23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정읍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이하 글로벌 캠프) 2기 운영에 돌입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청년들이 정읍에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의 문화와 일상을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기획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특히 농항에는 비어 있는 농업계 접근로자 기숙사를 캠프 거점으로 활용, 유휴 공공시설을 관광 지원으로 재탄생시킨 적극행정 혁신 사례로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2기 프로그램은 1기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1기 당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정읍농악과 씨름 등 품목으로 직접 체험하는 전통문화 체험을 강화해 외국인 청년들이 한국과 정읍의



미(美)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1기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중 재래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만들고 동네 식당을 이용하는 등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참가자들은 팀 과제 활동을 통해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정읍 관광 발전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2기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청년들의 반응을 살펴 체험형 관광 정책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상서면, 2026년 결실창래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성료

군정 운영 방향 공유·면민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 진행



부안군 상서면(면장 김선)은 3일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에서 '결실창래(結實蒼來)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면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색 프로그램인 난타를 식전 공연으로 시작했다.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함께 부안군 군농인재 육성장학금을 기탁하고, 고향사랑기부금부를 전달하며 행사장에 온기를 더했다는 것이다.

김선 면장으로부터 2026년 면정 보고에 이어 권익현 군수는 군 3대 희망비전을 중심으로 군정 운영 방향과 면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희망소통대화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도약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안철도시대 구축을 제시하며, 군민과의 소통대화를 이어 나갔다.

상서군민과 소통대화 후 부안군수는 상서면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하서면,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개최

부안군 하서면(면장 박현선)은 3일 하서면 문화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200여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군농인재육성장학금을 하서면 직접자 봉사회 및 체육회에서 각 100만원씩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총합 직원 일동 200만원, 하서면 새마을부녀회 및 석불산 파크골프협회가 각 100만원씩을 기탁했다.

박현선 하서면장직의 업무보고로 '새

금의 결실 부안, 부안의 미래 하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6년 면정 보고에 이어 권익현 군수는 군 3대 희망비전을 중심으로 군정 운영 방향과 면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희망소통대화 시간을 청취하고, 행사 후 하서면 경로당 3개소를 방문, 어르신들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현선 면장은 "하서면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면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하서면의 거침 없는 성장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년 새 23% 증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성 높아져... 이달부터 50개 품목 대상 단위농협 통해 신청

고창군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최근 3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농가 경영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9992호, 가입 면적은 1만4601ha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134호, 1만2615ha 대비 가입 농가 수는 약 23%, 가입 면적은 약 16%늘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창군의 단계적인 군비

지원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고창군은 농작물재해보험 군비 지원 비율을 2022년 15%에서 2023년 20%로 확대하고, 2024년에는 25%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농가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아져 농업인들의 체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약 50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2월부터 가입이 진행되며, 품목에 따라 가입 기간이 다르게 운영된다.

특히 가을배추도 8월부터 가입이 가능해져, 해당 작목 재배 농가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단위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해보험과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서해안 복분자주, 호수에 2만병 수출

고창의 대표 특산품인 복분자주가 호수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일 서해안 복분자주(대표 송지훈) 호수 수출을 위해 약 2만병(약 1억원)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서해안 복분자주 브랜드 제품인 '선운'은 엄선한 고창산 복분자를 황토

토굴에서 발효·숙성시켜 깊은 맛과 향을 살린 프리미엄 술이다.

2003년 대통령하사주, 2005년 APEC 공식민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 건배주로 선정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물량은 호수 현지 마트와 한인마켓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작년 뉴질랜드에 이어 오세아니아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지훈 대표는 "세계적으로 K-푸드와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며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